

2017년 5월 17일, 안덕면 서광리 서광서리경로당, 김승연 조사.

강추월(여, 1928년생, 안덕면 서광서리)

• 줄거리: 대정 사람이 성읍에 대나무를 사러 갔다. 날이 저물자 외양간을 얹고 자려는데 남자주인이 상주차림으로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뒤를 쫓아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분간이 어려운데 어딘가에서 옷을 벗어 걸어두는 거였다. 그 걸 입고 돌아오는데 여자주인에게 잡혀 들어갔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조금 후 남자주인이 들어오자 멀리 자라며 대정에서 외사촌 오라버니가 대나무를 사러 왔는데 날이 어두워서 같이 있다고 했다. 다음날 자기 집에 있는 대를 주라고 하고 암소에 싣고 가라고까지 한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며 가더라고 말해 주었다. 화가 나서 쫓아 가서 무어라 했느냐 따지자 소 한 마리도 내 매부 덕분이고 대 한 바리도 내 매부덕분이라고 했다 하니 가지고 간 도끼 가지고 주고 말았다. 그렇게 대정 사람은 순하다는 의미이다.

**[제보자]** ‘대정 뭉생이 으망진다.’ 훈 게 뭔 말이냐 흐면은 대정 사름이 정이 대 사례 갔어. 그 구덕 줄고 하간 거 흐젠 흐민, 댤 사례 갖는디 날이 주물고 어두와부니까 이젠 어쩔 수가 없어. 훈 집이 들어가네

“미안하지만은 날도 어둡고, 방이나 싯건 흐끔 빌립서. 흐쓸 머물엇당 낼은 날 새민 대를 상 가쿠다.”

흐나네

“아이고 방 엇수다.”

흐나네,

“저 올레에 외양간이라도 흐쓸 빌립서 나 외양간에라도 흐쓸 영 앗앗다그네 날 새민 가쿠다.”

흐나네.

“뭐 게민 경 흐주.”

옛날에 불도 엊고 봉덕불 사를 때라 영, 봉덕불 알아? 영 헤그네 술칵불 살르곡, 경 훌 때나겐, 외양간에서 보나네 밤인 주인 남주가 상젠 가 봐, 방립 그 동글락훈 방립 쓰고 시무옷 입꼬 흔들흔들 나가거든, 허난 ‘밤중에 무사 나값인고.’ 헹 ‘에이 요놈 조름에 쫓아 본다.’ 고 졸졸졸 쫓안, 뭐 뎅겨나지도 아녀 본 놈으

조름에 간다고 갓지. 둘도 엊고 旱난, 쫓안 가난 훈 집더레 가난 ?만이 올레 사  
둠서로 보나네. 방립이영 시무옷이영 탁탁탁 벗언에 저 무뚱에 지동 공장더레 착  
착 걸어된에. 안네 간 기게 살려 논 허여 간다 말이여. 겨난, ‘에이 요놈으 방립  
이영 시무옷이영 입어그네 집일 온다.’ 고, 집일 오젠 旱난 또 집을 못 촇아 오  
는 거라. 놈으 조름에만 출출 가나난. 아 촘 그 올레에 산 이레 훌력 저레 훌력  
했이난 그 사름 각시가 간에 모감지 폭 심고

“놈으 씹을 旱면 벨 旱냐고 나 씹 강 旱라 旱라.”

旱난 즘즈행 그자 졸졸졸 오랑 아닌게 아이라 旱는 게 원 이녁 서방을 담질  
안 旱거든.

“아, 이상旱다. 웬”

旱나네 旱끔 시나네 서방은 방립도이 여불고, 옷도 여불고 旱난 각시한티 오면  
직살나게 처 맞을 일이라 겨난. 서방은 으스레기, 들어오라 가난

“아이고, 저 발러레 누렌.”

旱나네 밧자리에 간에 우드레기 누웠이나네.

“이디 눈 건 누게라.”

旱나네

“저 대정서 우리 외사춘 오라방 대 사례 오랏단에 어두완 못 간 누웠어.”

旱나네

“경 허주 뭐.”

영 뭣이엔 곤지도 못 旱고 그자 하간거 여불고 旱나네 이제 중기?찌 旱연, 지  
각시 씹 여불고 헤 뒤에 이젠 듯날 아칙은

“저 경 말양 우영에 가그네 우리 대 비여 줘 불어게.”

旱나네

“게민 경 旱카.”

허나네 우영에 강 댤 북북북 비단 보난 너무 하영 비여전 훈 짐이라크나 하영  
비여지나네.

“아이고 댄 비단 보난 하영 비여젓저.”

旱난

“저 우리 감은암쉐 뿔 오그라진 것에 싣거 내어불게.”

旱나네 이젠 검은암쉐, 뿔 오그라진 것 끊어내여네 댤 훈 바리 싣건 이젠 물양  
가렌 해연 오멍 (소리)

“이렁이렁 떠렁떠렁 쉐 한 모리도 내 주지 덕분이오, 대 한 바리도 내 주지 덕분이오.”

허난 동네 사름은 들언네.

“야 너네 집 쉐 물양 가는 사람 이상헌 소리허더라.”

허난

“뭔 소리? 뭀 소리 허드냐, 거 우리 수춘 처남이여.”

허나네

“뭐 쉐 혼 모리도 내 주지 덕분이요, 대 혼 바리도 내 주지 덕분이요 허드라.”

허난

“이놈으 새끼 경 골아냐, 황기도치 〽전 강 뒤꼭지 웃아 불키여.”

헨 둘치며 와릉와릉 둘으멍

“야 이놈아, 거기 삿이라 삿이라.”

허난 영 삿이난

“어떤 일이꽈?”

허난

“너 아까 뭣이엔 골았나?”

“쉐 한 바리도 내 메비 덕분이오, 대 한 바리도 내 메비 덕분이오 헷소.”

허

“그럼 그렇지. 자 황기도치도 〽정 가.”

호명 도치??정 〽정 오?렌, 경 골안에 막 웃엇어 경, 계난 옛날 사름이 대정,

“양, 정이 사름덜은 순허여마씸. 여조고 남조고 순후고 우리가 옛날에 장소 뎅겨 보민 뒷박을 줘도 푹푹 주는디, 이 대정 사름은 벨라저그네 육은 체만 ㅎ고, 요 귀 덕더레 저 조천??장은, 가민양 조천 함덕더레 가민 훨 쓸어도 미레깃데 ㅎ 것보담 도 더 팝니다. 짹 이영 헤영으네 짹 훑으민 뒷가 움막움막 들어가. 미레기로 ㅎ영 쓸민 영 동글락ㅎ영 밀어, 미는 거고 그 건 영 바위ㅎ영 미는 건디, 손 영 행 짹 밀문 이추록 움탕옴탕ㅎ여.

경 혼디 우리가 헤 보민 정잇 어룬덜은 양 모물을 혼 말을 받을 거라도, 푹 거려 그네 육지사름덜 고봉 줍네께. 똑 경 주어마씸.”

- 핵심어 : 대정 몽생이, 대정 사람, 대나무, 황기도치, 정의 사람